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2014, 김진운 역)

프레임 · 인격적 말씀 모델

존 프레임 『성경론』(김진운 역, P&R Korea·CLC 2014), 1부 들어가기 제1장 '인격적 말씀 모델', 번역본 57~63쪽 무렵

🧭 흐름 한눈에

프레임은 먼저 이 책 전체의 요지를 밝힌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사람에게 말하듯 실제로 건네는 말, 곧 '인격적 의사소통'이라는 것이다. 이어서 아브라함·아담·노아의 이야기로 두 가지를 보여 준다.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리실 수 있고, 그 말씀 앞에서 사람이 할 일은 따지는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는 것이다. 여기서 그는 '권위'를 “듣는 사람에게 의무를 지우는 힘”으로 정의한다. 또 성경 이야기 전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사람이 반응하는” 이야기라고 정리한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자유주의·신정통주의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복음 전체를 잃는다고 경고한다. 끝으로 이 책은 성경을 성경 자신의 눈으로 변증하겠다고 밝힌다. 그것이 순환논리임을 숨기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성령께서 독자를 설득하시기를 의지한다고 말한다.

📜 절별 정리

(원문에 소제목이 없어 논증 단락을 따라 여덟 절로 나눴다.)

📜 1. 이 책의 요지: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적 소통'이다

프레임은 이 책의 중심 주장을 첫 문단에 놓는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은 비유가 아니라 진짜 대화다. 친구나 가족이 내게 말을 걸 때와 아주 비슷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알아듣고 알맞게 반응할 수 있다. 알맞은 반응은 믿음, 순종, 사랑, 회개, 웃음, 아픔, 슬픔처럼 여러 가지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 정보를 알려 주는

품고 있고 그 이상이다. 그래서 프레임은 약 50년 전 보수 진영이 힘주어 지켰던 '명제계시' 개념을 버리지는 않는다. 다만 그것을 더 큰 그림의 한 부분으로 놓는다.

1. 하나님 말씀 = 실제로 건네는 인격적 대화
2. 우리는 알아듣고 알맞게 반응할 수 있다
3. 반응은 믿음·순종·사랑·회개 등 여럿
4. 명제(정보 전달)는 포함하되 그보다 넓다
5. 말씀의 모든 면이 하나님의 자기 소통이다

📜 2. 침대 발치의 하나님: 하나님은 자신을 분명히 알리실 수 있다

프레임은 독자에게 하나의 상상을 제안한다. 한밤중에 하나님이 침대 발치에 서서 친한 친구처럼 직접 말씀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데 아무 의심이 들지 않는 장면이다.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 노아, 아브라함, 모세는 실제로 이렇게 말씀을 들었다. 그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을 받았을 때에도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 프레임은 솔직하게 덧붙인다. 만약 누가 자기에게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요구한다면, 자신은 그 목소리가 하나님일 리 없다고 결론 내렸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의심을 하지 않았다. 그는 누가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았다. 프레임은 여기서 키에르케고르가 『공포와 전율』에서 던진 질문을 빌려 온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자신이 하나님임을 아브라함의 마음에 모호함 없이 드러내실 수 있지 않겠는가? 이 장의 흐름 속에서 프레임의 답은 “그렇다”이다.

1. 성경 인물들은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알았다
2. 이해 못 할 명령 앞에서도 그 확신은 같았다
3. 아브라함은 '이게 정말 하나님인가'를 묻지 않았다
4. 하나님은 자신을 모호함 없이 알리실 수 있다

> **창세기 22장**
>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앞에서도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분을 확신했다는

> [1]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 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3]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4]제삼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 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5]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6]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

📜 3. 하나님의 말씀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다: 간구와 불평의 차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알려 주시거나 명령하신다면, 나는 그분의 지식이나 명령이 공정한지 따지고 들겠는가? 프레임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 길은 파멸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사람끼리 주고받는 말은 비판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믿고, 순종하고, 기뻐하고, 회개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 뜻을 잘못 알아들을 수는 있다. 그러나 일단 알아들었다면 머뭇거리지 말아야 한다.
프레임은 예상되는 반론에도 답한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소돔을 두고 하나님과 '협상'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장면이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와 공정함을 의심한 것이 아니라 예외를 구하는 끈질긴 기도였다고 본다. 아브라함이 던진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라는 물음 자체가 “물론 그러십니다”를 전제한 수사적 질문이다. 반면 욥처럼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은 죄이고 회개해야 할 일이다.

1. 사람의 말은 비판해도 하나님 말씀은 아니다
2. 하나님 말씀을 따지는 것은 파멸의 길
3. 아브라함·모세의 탄원 = 의심 아닌 기도
4. 창세기 18:25는 '예'를 전제한 질문

창세기 18:22-23

아브라함이 소돔의 의인을 위해 탄원함. 하나님과의 '논쟁'이 실은 기도라는 예

22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23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출애굽기 33:12-23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장면. 간구는 의심과 다르다는 예

12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13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14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15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 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16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17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앎이니라 ...

창세기 18:25

아브라함의 질문이 하나님의 정의를 전제한다는 것을 보여 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욥기 40:2

하나님께 불평하는 자를 하나님이 꾸짖으심

욥기 40:3-5

욥이 입을 다물고 물러섬. 불평이 잘못임을 인정

3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4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5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욥기 42:1-6

욥의 회개. 불평은 회개로 끝나야 한다는 근거

1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2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3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4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5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6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다."

📜 4. 성경 이야기를 끌고 가는 힘, 그리고 '권위'의 뜻

프레임은 하나님의 인격적 말씀이 성경에서 흔한 일일 뿐 아니라 성경 이야기를 앞으로 밀고 가는 엔진이라고 말한다. 성경 이야기에서 늘 쟁점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에덴에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기본 임무를 주셨고, 이어서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금하셨다.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였다. 본문은 아담과 하와가 말씀하신 분이 누구인지 몰랐다거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전혀 내비치지 않는다. 말씀은 단순하고 분명했고, 그들의 책임도 분명했다. 프레임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말의 뜻이라고

비유는 그 안에 나를 세워 묵상해야 한다. 사랑의 표현에는 감사로 응답해야 하고, 약속은 신뢰해야 한다.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말은 절대적인 의무를 낳는다.

1. 성경 이야기의 쟁점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2. 에덴의 명령: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
3. 아담과 하와는 말씀을 분명히 이해했다
4. 권위 = 듣는 이에게 의무를 지우는 힘
5. 말씀의 종류마다 알맞은 의무가 다르다

> **창세기 1:28**
> 사람에게 기본 임무를 주신 첫 말씀. 인류 역사는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는 출발점
>
>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 **창세기 2:17**
> 선악과 금령. 첫 사람 앞에 놓인 문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근거
>
>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 5. 왜 아담과 하와는 알면서도 불순종했는가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했다. 프레임은 여기서 정직하게 질문을 늘어놓는다.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고 하신 사람이 어떻게 불순종할 수 있었는가? 본문은 그 원인을 말해 주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말씀에 복과 저주를 가져올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왜 저주가 올 줄 알면서도 그렇게 했는가? 뱀으로 나타난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서는 말을 덧붙여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래도 “왜 사탄의 말을 믿었는가”는 여전히 남는 질문이다. 프레임이 내놓는 가장 깊은 답은 그들이 스스로 신이 되고 싶어 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충동적이고

1. 본문은 타락의 '원인'을 설명하지 않는다
2. 그들은 말씀의 권위와 결과를 알고 있었다
3. 사탄은 하나님 말씀에 맞서는 말을 덧붙였다
4. 가장 깊은 이유는 신이 되고 싶은 교만
5. 말씀이 불분명해서가 아니었다

> **창세기 1:31**
>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하신 사람이 불순종했다는 수수께끼의 배경
>
>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 **로마서 1:25**
>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과 바꾼 것. 타락의 핵심을 설명하는 구절
>
>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 **창세기 3:16-19**
> 불순종의 결과로 임한 저주. 말씀에 실제로 저주의 힘이 있었다는 근거
>
> 16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17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19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6. 노아에서 히브리서 11장까지: 믿음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노아도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 그 명령은 이웃의 눈에 터무니없어 보였을 것이다. 노아는 하나님이 틀리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순종했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이 참되다는 것을 보여 주셨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다윗의 이야기도 같은 틀이다. 믿기 어려운 말씀이나 하기 어려운 명령이 먼저 오고, 이야기는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불신앙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 흘러간다. 히브리서 11장이 이 사람들을 한데 모아 보여 준다. 그래서 프레임은 성경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사람이 알맞게 또는 그릇되게 반응하는 이야기"로 요약한다. 예수님도 계명을 지키는 자가 자신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의무, 그리스도 안의 모든 구원 약속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기에 우리에게 있다. 사람의 공로 의식을 배제하는 은혜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 말고 어디서 올 수 있겠느냐고 그는 묻는다.

1. 성경의 이야기 = 말씀하시는 하나님 + 사람의 반응
2. 노아: 터무니없어 보이는 명령에 순종했다
3. 히브리서 11장은 그 반응들을 모은 목록
4. 하나님에 대한 앎·의무·약속은 다 말씀에서 온다
5. 은혜의 복음은 사람 생각에서 나올 수 없다

> **히브리서 11장**
>
>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의 요약. 믿음을 정의하는 근거
>
> [1]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2]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3]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4]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5]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6]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신을 믿어야 할지니라

요한복음 14:21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순종이 신앙의 본질임을 보이는 예수님의 말씀

>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 7. 오늘 우리는 어디서 그 말씀을 듣는가: 포기할 수 없는 전제

프레임은 두 가지 질문이 남는다는 것을 인정한다. 첫째,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보통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이것은 정경의 문제다. 둘째, 말씀이 주어진 시대의 문화와 지금 사이에 큰 거리가 있다.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것은 해석학의 문제다. 그는 둘 다 뒤에서 다루겠다고 미룬다. 다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수 없다” 또는 “이해할 수 없다”는 답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긋는다. 하나님이 인격적 말씀으로 사람과 소통하신다는 생각은 성경 전체에 배어 있고 모든 교리의 중심에 있다. 그것을 잃으면 은혜의 구원, 심판, 그리스도의 속죄,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근거가 모두 무너진다. 결국 기독교는 사람의 추측과 환상이 된다. 프레임은 주류 자유주의와 신정통주의가 바로 이 지점을 부인한다고 본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일은 일어나지 않거나 일어날 수 없다고 하거나, 과거엔 있었을지 몰라도 정경과 해석학의 문제 때문에 지금은 아니라고 한다는 것이다.

1. 남은 질문 두 개: 정경과 해석학
2. '들을 수 없다·이해 못 한다'는 답이 될 수 없다
3. 인격적 말씀은 모든 교리의 중심이다

5. 자유주의·신정통주의가 바로 이것을 부인한다

📜 8. 이 책의 방법: 성경을 성경 자신의 눈으로 변증한다

프레임은 이 책이 성경이 보여 주는 '인격적 말씀 모델'을 풀어 설명하고 변호하는 책이라고 소개한다. 자유주의·신정통주의와 다르지만, 그 차이를 분석하는 데 많은 지면을 쓰지는 않겠다고 한다. 자유주의 전통에 대한 견해는 3~7장에 요약했다고 밝힌다. 성경 비평가들에게서 배울 것이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무오성을 다시 정의하거나 줄이거나 없애자는 최근 일부 보수 신학자들의 흐름은 따르지 않겠다고 한다. 이에 대한 비평은 부록 J·K·L(엔즈, 라이트, 맥고완)에 있다. 무오성은 사전적 뜻과 그 말을 처음 쓴 이들의 의도대로 이해하면 훌륭한 개념이다. 다만 성경의 권위를 지킬 때 말해야 할 것보다 훨씬 적은 것만 말해 주는, 큰 그림의 한 조각이라고 본다. 교리사를 늘어놓고 남은 선택지를 고르는 흔한 신학 방식도 꼭 따를 필요는 없다고 한다. 최종 답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야 하고, 그것은 어려운 주석이 아니라 분명한 것을 계몽주의적 회의 없이 보면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그는 성경이 성경에 대해 하는 말뿐 아니라 성경 자신의 세계관, 앎의 이론, 가치로 성경을 변증하겠다고 한다. 이것이 순환논리라는 것을 그는 부인하지 않는다. 진리의 최종 기준을 변증할 때는 그 변증도 그 기준을 따라야 하므로 이런 순환은 피할 수 없다고 본다. 성경적 인식론 안에서 허용되는 성경 밖의 근거도 쓰겠지만, 궁극적으로 독자를 설득하시는 분은 성령이시고, 하나님의 소통은 처음부터 끝까지 초자연적이라고 맺는다.

1. 목표: 성경의 인격적 말씀 모델 해설·변호
2. 무오성은 좋은 개념이나 큰 그림의 일부
3. 최종 답은 교리사가 아니라 성경에서
4. 성경을 성경의 세계관·인식론으로 변증한다
5. 순환은 최종 기준에 불가피, 결국 성령 의지

⚖️ 오해와 반론

📖 용어

인격적 말씀 모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라는 인격이 사람에게 직접 건네는 말'로 보는 프레임의 핵심 틀이다.

명제계시
하나님이 참이나 거짓을 따질 수 있는 문장, 곧 정보의 형태로 진리를 알려 주신다는 생각이다.

권위
프레임의 정의로는 말이 듣는 사람에게 의무를 지우는 힘이다. 절대 권위의 말은 절대 의무를 낳는다.

정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받은 책들의 목록, 곧 성경 66권이다. 여기서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어디서 찾나”라는 질문으로 나온다.

해석학
오래전 다른 문화에서 쓰인 글을 오늘 바르게 이해하는 방법을 다루는 분야다.

무오성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에 오류가 없다는 교리다.

신정통주의
20세기 초중반에 바르트 등을 중심으로 일어난 신학 흐름이다. 자유주의를 비판했지만 성경 문자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하지는 않는다.

계몽주의적 회의주의
사람의 이성을 최종 판단자로 삼아 계시와 초자연을 일단 의심하고 보는 근대의 태도다.

인식론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를 다루는 철학 분야다.

결론을 이미 전제에 넣고 논증하는 것이다. 프레임은 최종 기준을 다룰 때는 피할 수 없다고 본다. 이는 스승 반틸의 전제주의에서 온 생각이다.

🔗 다른 책과 닿는 곳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하나님의 말씀은 정보 전달을 넘어 사람에게 직접 건네시는 인격적 소통이다.
- 그 말씀에는 듣는 이에게 의무를 지우는 절대적 권위가 있고, 우리가 할 일은 믿음과 순종이다.
- 성경 전체는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반응하는 사람의 이야기이며, 믿음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하면 은혜·심판·속죄 등 기독교의 핵심이 모두 무너진다.
- 이 책은 성경을 성경 자신의 틀로 변증하며, 그 순환을 인정하고 성령의 설득을 의지한다.

🎬 이 장을 쓰는 편

- 성경론 1편 · 성경을 믿는다는 말의 뜻 · 다섯 책과 한 장의 지도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B. B. 워필드 『성경의 영감과 권위』(CLC), 헤르만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새물결플러스)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와 존 오웬의 논고(1659)는 공유 저작물로 우리 번역입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